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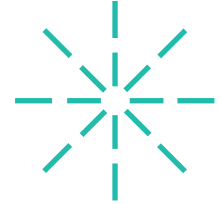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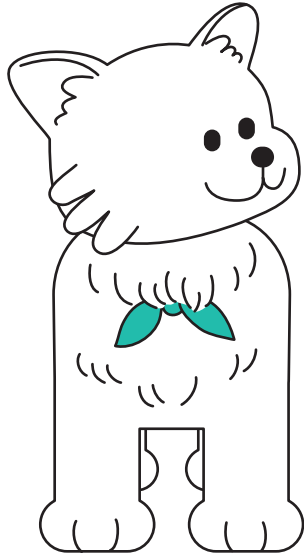


비우고, 채워가는 공터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안녕 공터	03
공터의 꿈	03
공터의 방향	05
공터가 걸어온 길	07
우리 센터는 이런 일을 합니다	09
공터 이용 안내	10
공터 활동 이야기	13
부록 공터의 TMI	21

안녕? 내 이름은 설기!
공터에서 살고 있어.

2010년에 생긴 공터가 벌써 10살이 됐어.
지금부터 새롭게 바뀐 공터에 대해 설명해줄게.
왈왈!



안녕공터

1. 공터의 꿈

공터는 노원구가 설립하고,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탁 운영하는 공공청소년시설이자,
도서관입니다. 공터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편안한 쉼을 드리는 사람과 책,
공간이 있습니다.

공터는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청소년을
길러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실천합니다.

공터는 '마을 교육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을이 지닌 교육력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는
본래의 힘입니다.

공터는 멋진 시설과 전문적 인력,
풍부한 재정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
주민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기보다
마을이 지닌 본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마을의 활력에 투자하고, 청소년이 꿈꾸며 살만한
마을 생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누구라도 꿈꾸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마을을
일구어가는 꿈입니다.

2. 공터의 방향

지향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청소년

지식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는 청소년센터

꿈·열정·희망이
넘치는 살맛나는
지역공동체 공릉동

활동 철학

‘경험이 최고의 학습이다.’

최고의 경험은 **‘마을’** 안에서,
‘일상’ 속에서 일어난다.

활동 원칙

스스로 서서

스스로 선다는 것은 자신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과 청년은 꿈과 이상을 키우는 시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갈 꿈과 이상을 가지고 스스로 서야 합니다.

더불어 살린다.

우리는 경쟁이 아닌 협동을 지향합니다.
다른 이를 놀려야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와 나, 안과 밖이 만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칩니다.



중요한 가치



자주성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재미있습니다. 스스로 해야 성장합니다.
대신해주기 보다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공생성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사회는 약자도 살만해야 합니다. 약자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사회는 이웃이 있고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상성

의미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특별한 경험도,
계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의 성장과
발전이라야 편안하고 오래 갑니다.



지역성

모두 중심을 지향하지만, 변방은 창조의 공간입니다.
변화와 창조는 제 마당, 제 삶터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본질적입니다.



참여와 협력

우리는 모든 일에 중심에 서서, 주도하려고만
욕심내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다른 이들과 협력하며 함께 일 해나갑니다.
우리는 여럿이 함께 마을의 교육력을 키워갑니다.



역경을 이기고 피는 꽃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현실의 역경과 고난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역경에서 피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꽃은 고난을 이기고 피어납니다.

3. 공터가 걸어온 길



2010년

10.29 노원구로부터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탁확정



2011년

02.24 정식 개관 (청소년문화의집,
화랑도서관 단체등록)
05. 든든한이웃 및 어머니샤서 결성
06. 제1회 와글와글 어린이 벼룩장터
11.18~19 제1회 꿈마을 꿈축제 "꿈나르샤"



2012년

03.03 학교 밖 청소년 징검다리 거점 공간
"나도꽃" 개소
06.13 공릉동꿈마을공동체 구성



2013년

04. 마을 되살림 매장 든든한 보따리 개소
07.06 마을북카페 다락 개소
12.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여성가족부 평가)
공터에 온 설기

2014년

02.20 청소년휴카페꽃다방 개소
10. 마을여행 시작, 꿈마을여행단 발족
11.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수상





2020년

공터 공간 혁신사업·재개관



2019년

02.22 이상한 작업장 오픈

06.18 공간 혁신 프로젝트 협약(노원구청)

10.30 청소년수련시설 우수사례공모전 최우수상(여성가족부)

12.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여성가족부)



2018년

09.05 공릉동꿈마을공동체 서울공동체상 수상

09.06 국가균형발전위원장 표창(도서관을 넘은 도서관 분야)

12.06 노원구청장 표창(노원구 자원봉사 우수 수요처)

12.26 제1회 한겨레-SH 행복동지이야기 공모전 대상(꿈마을공동체)



2017년

01. 가치놀자 마을놀이문화운동 동아리 발족

12.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03.~12 서울시참여예산 청년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수행(총8명)



2016년

05. 서울혁신로드 탐방지로 선정

2015년

02.28 도서 출판 “우리가 사는 마을”(한국도서관 저널)

12. 최우수 청소년수련시설 선정(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4. 우리 센터는 이런 일`을 합니다

1

청소년자치와 사회참여 활동

자주적이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청소년을 길러내는 일

2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독서교육 활동

어릴 때부터 책 읽는 습관을 기르고, 자발적인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일

3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 체험 활동

예술과 문화적 표현 그리고 과학적 지식을 알려주는 일

4

청소년 여가생활 지원 활동

청소년들의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새로운 체험과 도전을 경험하게 하는 일

5

문화 다양성 이해 활동

문화와 문화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일

6

꿈 찾기, 길 찾기 진로교육 활동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돕는 일

7

학교·가정 지원 활동

정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가족의 관계를 증진하는 일

8

예방적·회복적 활동

좌절과 실패를 경험한 청소년을 돕고, 마땅한 지원책을 찾아 주선하는 일

9

교육복지 공동체 만들기

공동체 활동에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고, 마을에 활력을 불어 넣는 일

공터 이용안내

이용시간

층별 주요 공간	여는 시간	닫는 시간		
		평일(화~금)	토요일	일요일
1층 어린이열람실 트랙	오전 09:00	오후 06:00	오후 06:00	오후 05:00
2층 청소년문화공간	오전 09:00	오후 09:00		
3층 YouthCafe	오전 10:00	오후 08:00		
4층 청소년문화공간	오전 09:00	오후 09:00		
5층 종합자료실 숲길	오전 09:00	오후 08:00	오후 09:00	
6층 청소년열람실 언덕	오전 09:00	오후 10:00		

〈휴관〉

*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에 휴관합니다.

〈이용제한〉

* 3층 유스카페는 청소년전용 공간입니다.
* 초등학교 5학년(12세)부터 이용 가능하며,
20세 이상 성인은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감〉

* 닫는 시간 20분 전부터 마감 준비를 합니다.

〈대관〉

* 청소년문화공간(2·4층) 대관은 화요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가능합니다.
* 대관은 청소년 활동에 가장 우선합니다. (특히 주중 3시 이후, 주말)
* 청소년 동아리 또는 도서관 동아리로 등록된 경우 공간을 무료로
공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모임 및 동아리, 도서관 모임, 마을공동체 활동과 연결되지
않은 별도 목적의 공간 이용은 제한되거나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층별 안내

안녕!
공터를 소개할게요!



공터 만년 대리 백설기



지하1층

이 곳에선 우리 모두 슈퍼스타!
합주 연습과 녹음이 가능한 밴드실
공닥이 있어요.

1층

안내· 어린이열람실 트락

공터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1층이에요.
어린이열람실 트락,
커피와 이야기가 있는
꽃다방, 되살림가게
든든한보따리가 있어요.



만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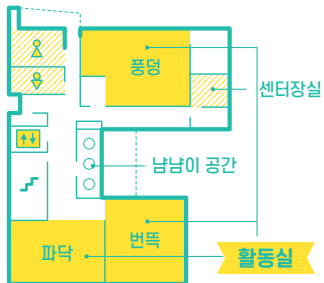


4층

청소년문화공간

기타, 발레, 영어 등 다양한
학습이 있는 공간이에요.
모임이 가능한 풍덩,
넓은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번뜩과
파닥실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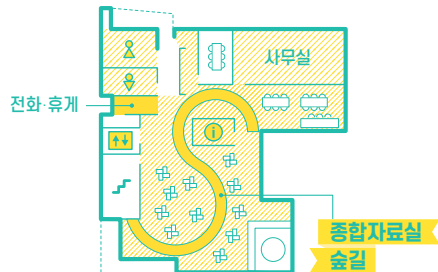
배움터



5층

종합자료실 숲길

없는 책이 없는 종합자료실!
서가 사이를 탐방하며
원하는 책을 골라보고,
편안한 자리에서
재미있는 만화책을 골라
읽을 수 있어요!



재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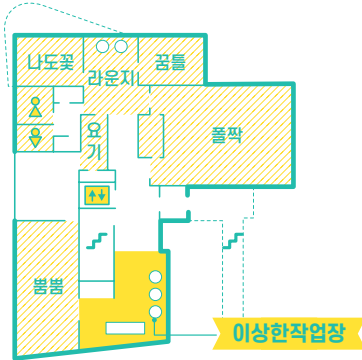


모임터

2층

청소년문화공간

똑딱똑딱 만들어보는
이상한 작업장, 둥치둥치
댄스 연습실 뽀뽀, 학교 밖
청소년 공간 나도꽃, 팔색
조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모임 공간 풀썩이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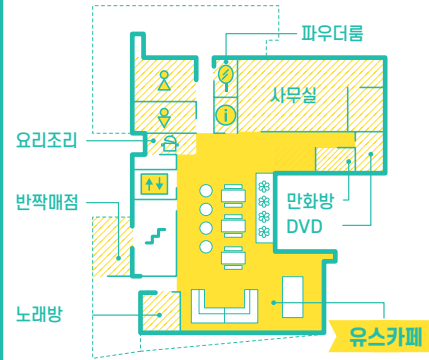


놀이터

3층

YouthCafe

최신 오락시설과 만화책이
가득한 휴식공간,
배고플때는 맛있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주방까지 겸비한
유스카페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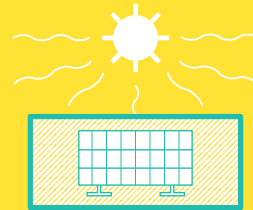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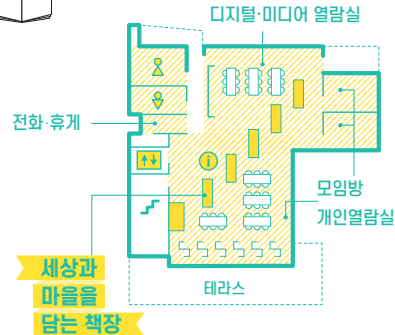


나눔터

6층

청소년열람실 언덕

공릉동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담긴 컬렉션 책장에서
맘에 드는 책을 골라 읽어보
세요. 모임방에서 토론도
해보고, 탁 트인 테라스에서
잠시 숨 돌려 보아요!



7층 하늘발전소

태양광 발전기가 햇빛을 모아
전기를 만들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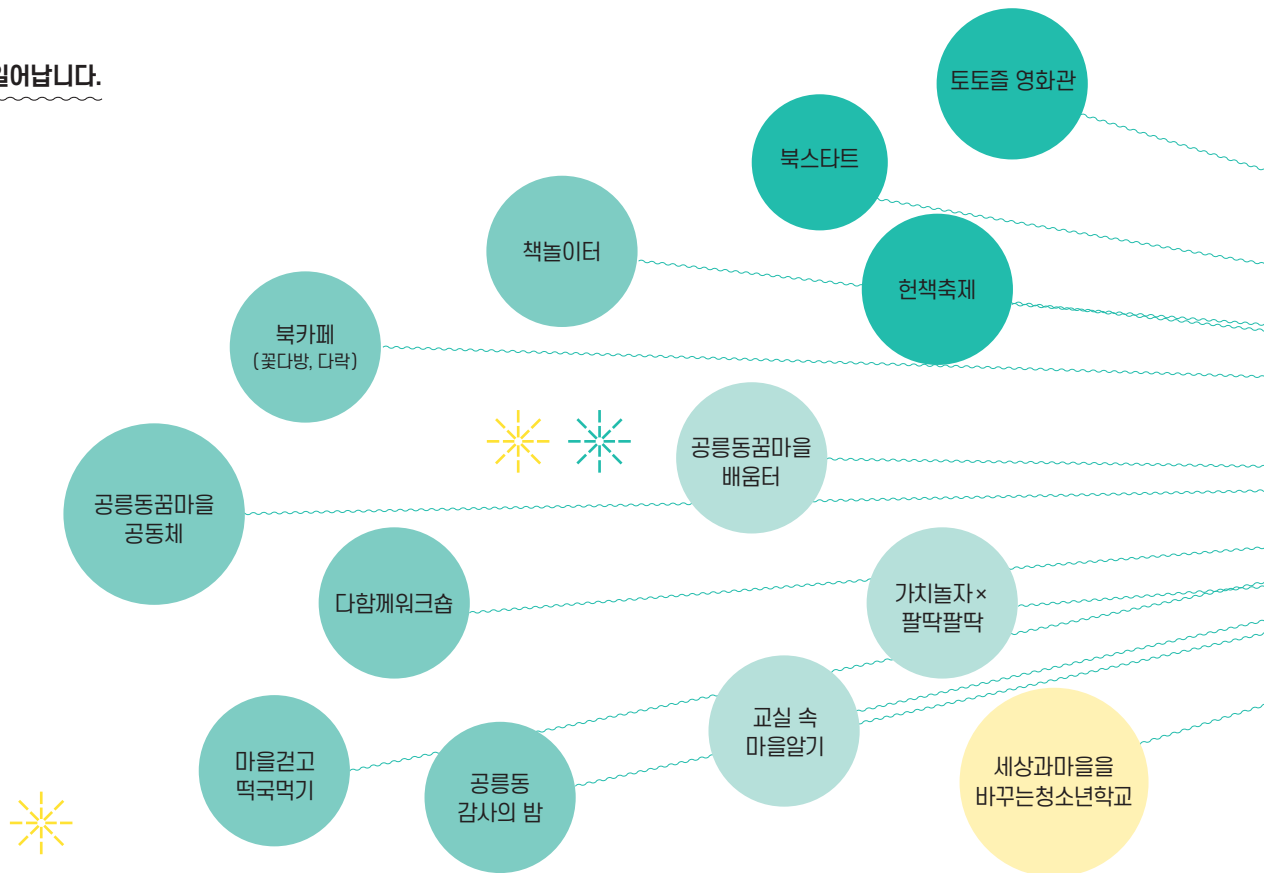
공터 활동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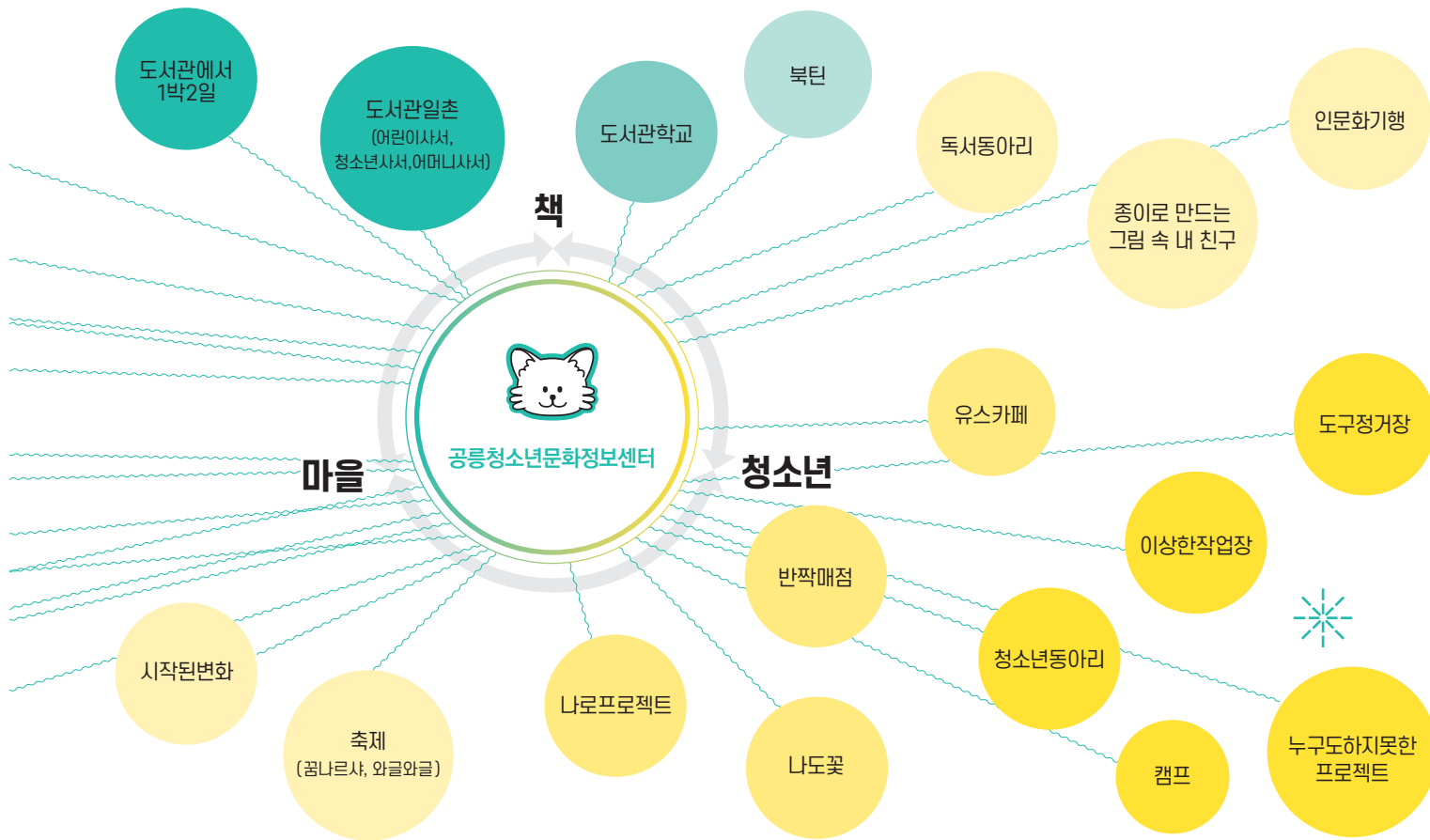
최고의 경험은 마을에서 일어납니다.

책이 있는 마을,

청소년이 행복한 곳,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

시작된변화

마을의 변화를 이끄는 청소년

‘시작된변화’는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해가는 사회참여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청소년의 삶은 대개 누군가에 의해 짜인듯한 일상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시작된변화’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상상하고, 해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공터는 청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성공적인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경험을 통해 청소년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임을 알게 됩니다. 시작된 변화는 2011년 공터에서 시작했습니다. 2020년, 열 번째를 맞이하는 ‘시작된변화’는 공동동뿐 만 아니라 노원구 관내 곳곳으로 확산되었고, 60여 개 청소년 동아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스카페

공동동 청소년의 놀이터

청소년이 놀 곳은 PC방, 노래방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동 청소년에게는 좀 더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오락기, 농구게임기, 포켓볼, 만화방, DVD방, 노래방,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보드게임, TV, 컴퓨터, 휴대폰 충전, 고데기, 와이파이, 밥 무한리필 라면 가게(GY25) 등 한 번에 말하기에 숨 찰 만큼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체험, 게임, 영화제 등 청소년을 위한 수많은 이벤트가 열립니다. 학교 끝나고 서로 먼저 이용하겠다고 달려오는 곳입니다. 한 달에 3,000여명이 다녀가는 공간이죠. 공터 일꾼들이 *데월드 못지않다고 말하는 이곳은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문화공간 ‘유스카페’>입니다.



반짝매점

오늘은 내가 공동동 요리사!

공터 3층 테라스에 있는 노란 컨테이너는 가끔 “반짝” 매점으로 열립니다. ‘반짝매점’에서는 청소년이 기획, 홍보, 판매까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이곳에서 디자인, 요리, 서빙, 계산 등 다양한 역할을 경험하고 수익금을 내며 성취감을 얻습니다. 또한 판매 수익은 자신이 직접 찾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할 수도 있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경험을 얻고 싶다면 말이죠. ‘반짝매점’은 또래 청소년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의 ‘만남의 장소’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작업장

'이렇게 상상한대로' 창작하는 공간

이상한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재료비에 비치되어 있는 재료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하여, 원하는 만들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만들고 싶은 것을 상상하고, 상상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 작업장의 재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기, 오리기, 붙이기, 종이접기는 물론 빨대로 만든 악기, 나무젓가락과 끈을 연결한 줄넘기, 장난감 만들기, 뜨개질, 바느질도 가능한 자유로운 창작의 공간입니다. 토요일에 열리는 도구 정거장에서는 이상한 작업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날카롭고, 뜨겁고, 무시무시한 도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도꽃

학교 밖 청소년의 든든한 공동체

'나도꽃'은 학교 밖 청소년의 아지트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편안한 쉼을 가지기도 하고, 둘러앉아 근황을 묻기도 하며, 대화 속에서 재미난 일들을 찾아내 작당을 벌리기도 합니다. 정해진 시간표와 동일한 학습 과정은 없습니다. '나도꽃' 아지트에서 자신만의 삶을 꽃피우는 청소년은 10만원으로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나로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또 마을 주민과 함께하는 '바리스타 인턴십', 해보고 싶은 활동을 활동가들과 함께 기획하는 '더불어프로젝트', '갈무리여행' 등으로 학교 밖에서 삶을 배우고,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

함께 도전하는 청소년

'누구도 하지 못한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쉽게 도전 할 수 없는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제시합니다. '누하프'는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내 길 찾기'라는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나만의 도전과 우당탕탕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무작정 여행 프로젝트, 부모님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지리산, 설악산, 영남알프스 '무박 종주 산행'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작은 도전과 성취의 경험은 '완주했다',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맛보게 했고, '나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



와글와글

어린이들의 잔치날

“와글와글”은 어린이날을 맞아 공릉동 꿈마을에서 열리는 작은 잔치입니다. 2011년 ‘든든한이웃’이 주최한 <어린이버룩장터>에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이 더해져 2013년 <꿈마을어린이잔치>로 성장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지역주민, 공릉동 꿈마을공동체가 함께 어울려 준비합니다. 매년 열리는 “와글와글”은 어린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마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17

꿈나르샤

꿈을 펼치는 청소년 축제

공터는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숨은 끼를 발산하는 축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꿈나르샤’는 ‘꿈으로 날아오르다’라는 뜻을 지닌 순우리말입니다. 온 마을이 청소년의 꿈을 응원하자는 취지의 청소년 진로 페스티벌로 2011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청소년이 직접 축제 전체를 상상하고, 홍보하고, 운영합니다. 무대 위에서 멋진 퍼포먼스를 뽐내고,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자신 만의 꿈을 이야기하는 청소년여름축제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마을 놀이 활동

같이 놀며 행복해지는 곳

학업에 지친 청소년은 공터에 모여라! 공터에는 청소년과 어른들이 함께 모여 놀이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놀이문화를 퍼뜨리는 어른 모임 ‘가치놀자’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자치활동단 ‘팔딱팔딱’도 있지요. ‘가치놀자’는 일주일에 한번 동네 아이들이 모여 같이 놀 수 있도록 장을 펼치고, 마을 축제에서는 놀이 부스를 열어 어린이를 놀이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팔딱팔딱’은 청소년이 놀이 안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는 활동입니다. 친구들과 놀이로 관계 맺고, 놀이 캠프, 놀이 워크숍, 놀이 기획단 등으로 활동합니다.



공릉동꿈마을공동체

함께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

공릉동에는 따뜻한 이웃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꿈마을공동체'는 공릉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마을공동체입니다. 2012년 마을축제를 계기로 만난 '꿈마을공동체' 사람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보편적 약자인 청소년의 돌레사람이 기꺼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꿈마을공동체'는 자율적인 개인들이 열린 공동체를 지향하지만, 함께 마을의제를 찾고, 해결하는 힘 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끈끈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을을 공부하고, 마을잔치를 하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을 꾸려가면서 이웃들과 살맛나는 공동체를 일구고 있습니다.



세마청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청소년 학교

일상의 작은 변화로 큰 물결을 만드는 청소년

'세·마·청'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은 행동을 구상하고, 여럿이 함께 실천하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마을 환경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동네 고양이 누가 돌보고 있을까?, 마을의 숨은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새롭게 나타내 볼까?, 청소년은 정치·정당에 어떻게 참여 할 수 있을까?, 플라스틱 어떻게 줄일 수 있지? 등 매년 다른 주제로 청소년과 만나고 있습니다.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제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며, 변화를 위한 상상과 구체적 실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매년 여름 청소년이 만들어내는 작은 행동은 마을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교실 속 마을알기

마을이 학교다

마을과 학교를 연결해주는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입니다. 마을에서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체험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합니다. 마을공동체와 관계 맺고 살아가는 우리 동네 이웃들의 일과 삶을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꽃다방(청소년휴카페)에서는 바리스타가 되어보고, 착한바느질(바느질동아리)과는 버려지는 청바지를 이용해 마을지도를 만들어봅니다. 공릉꿈마을협동조합과는 마을공동체와 연결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보고, 꿈마을여행단 해설사님과 함께 마을여행을 떠납니다.



책



북스타트

책과 함께 자라는 아이들

공터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며
자랄 수 있습니다. 공터 화랑도서관 '북스타트'는
18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양육자를 도서관으로
초대하여 책꾸러미를 선물합니다.

또 아가의 신체·정서 발달을 돕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청소년에게는 '책놀이터'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나누는 즐거운 독서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북스타트의 일환으로
'공동체 책친구 300'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일촌

인문 공동체를 키워가는 곳

공터 화랑도서관은 마을 주민들과 지식의 가치를
나누고, 인문 공동체를 키워가는 역할을 합니다.
어린이사서, 청소년사서, 어머니사서 각각의 모임은
'도서관일촌'이라는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일촌'은 일꾼들과 함께 도서관 공간과 문화를
일궈왔습니다. 일촌은 마을 주민을 도서관으로
초대하고, 함께 책읽기, 읽어주기, 도서관 이용교육,
문화행사, 독서토론 등을 통해 마을의 독서문화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우리 삶을 바꾸는
도서관'이 되는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문학기행

인문학적 소양 쌓아가기

공터는 해마다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문학기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해 이슈가 되는
작가 혹은 작품을 선정하여 관련 전시회, 박물관,
문학관을 탐방하는 등 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나보는
흥미로운 활동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은 교과서에서만
만나던 작가의 작품을 감각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으며, 여럿이 함께 하는 경험을 통해
책과 도서관 그리고 친구와 더 친해집니다.



북소리

책을 통한 봉사 실천

공터 화랑도서관에서는 책을 통해 의미 있는 봉사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사서는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북소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오후 2시가 되면 종을 울려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해서 책을 읽어줍니다. 청소년자원봉사그룹 “북틴”은 워크숍을 통해 그림책에 대해 학습하여 마을 어린이들에게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청소년을 도서관 단순 이용자에서 더 따뜻하고, 열린 마을 공동체 일원으로 만듭니다.



도서관에서 1박2일

어린이들의 놀이터

공터 도서관은 재미있는 놀이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1박 2일'은 매년 여름방학마다 어린이들에게 즐거운 도서관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용한 도서관에서 쉽게 할 수 없었던 보물찾기, 아바와 함께 저녁 만들어 먹기, 전래귀신 놀이, 몸으로 말해요 등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합니다. 또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토토줄 영화관', 그림책 속 인물을 종이접기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종이로 만드는 그림책 속 내 친구', 특별 문화공연과 놀이 프로그램 등으로 도서관은 책과 함께하는 놀이터가 됩니다.



사계절 책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

화랑도서관은 계절, 절기와 관련된 책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화전 만들기, 여름에는 옥수수 찌막기, 가을에는 문학탐방, 겨울에는 헌책축제 등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도서관 이벤트를 열고 있습니다. 계절과 절기에 맞춘 재미있는 활동을 통해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와의 어색한 만남은 어느새 마음을 나누는 새로운 관계로 발전합니다.

공터 TMI



1. 라떼는 말이야

인생-센터=0. 센터와 동고동락한 이용자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10년차 대스배림들,
공터 새싹에서 나무가 되어가는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공터 그 10년의
역사를 함께 해주신 분들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Q. 센터에 대한 첫 인상은 다들 강렬하실 것
같아요. 센터의 첫 인상은 어땠나요?**

동고동락 이용자 주변에 이런 기관이 생기다니!
조금은 낯설었지만 새 공간이 생겨 좋았습니다.
센터에서 개를 키우는 것도 신기했구요.

버팀목 대스배림들 역시랑 가까워서 좋았고 통유리
가 정말 멋있었는데 이때는 몰랐죠. 통유리 때문에
얼마나 춥고 더워질지...(웃음) 초반이라 사무실도
어수선했는데 도서관이 생기니까 센터 전체가
정신없어진 거 있죠? 도서관에 책이 많이 없던
상태였는데 대출까지 해가니까 서가에 책 몇 권만
덜렁 누워있고 그랬어요.

자라나는 나무들 사람이 엄청 많고 정신없었어요.
센터가 꽤 찬 느낌이었어요.

**Q. 라떼는 마을 축제하면 말이야~ 약 10년간
진행된 와글와글, 꿈나르샤 축제에서 가장 기
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동고동락 이용자 다들 얼마나 열심히 축제를
꾸려나가는지...! 벼룩시장에서 좋은 물건도 득템
하고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등 재밌는 활동들도
생각나요. 찹깨빵으로 된 꿈빵도 맛있었어요.

버팀목 대스배림들 축제 초반엔 직원들끼리 단체
티셔츠도 공구했었는데 아직도 집에 간직해두고
있답니다. 작게 시작했던 마을 축제가 해가 지날수
록 '주민주도형축제'가 된 것이 가장 인상 깊어요.
(부듯^^)

자라나는 나무들 매년 축제의 피날레인 놀부
부대찌개 저녁식사, 담당 청소년과 함께한 시간
모두 즐거웠습니다. 그치만 부대찌개가 점점
지겨워지려하네요. 힘들어서 공터 앞 바네하임에
서 맥주 마시다가 울었던 건 비밀~ (눈가 축축)

Q. 수많은 동아리들이 태어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해왔죠. 그 중 기억에 남는 동아리는 무엇인가요?

동고동락 이용자 아직도 있는 동아리긴 하지만 직접 했던 어린이사서, 청소년사서가 진짜 짝이었어요. 도서관일촌의 첫 동아리인 '이유 있는 목요일'도 기억에 남구요.

버팀목 대손배림들 혹시 땡벌 아래서 벽화 그려보셨어요? 차량통제, 육체노동... 힘들기도 했는데 함께한 친구들이 뿌듯해 해서 좋았습니다. 시작된 변화 중 한여름에 길바닥에 붙은 껌을 떼어내 멋진 그림을 그렸던 친구들, 도서관 배달을 했던 스에노 친구들, 축제 때 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었던 댄스 동아리 챌린저. 아, 저는 땡벌 아래 함께했던 동아리가 기억에 남나봐요.

자라나는 나무들 제 동료가 했던 일이라 그런지 지구마을탐방 동아리가 기억에 남네요. 입사 이유가 된 동아리 '모해', 개인적으로 망한 프로그램

(망프)이라고 생각되는 그린바이크도 생각나요. 물론 망프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 의미는 있었어요.

Q.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버팀목 대손배림들 라떼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었어요~ 물도 적게 마실 정도였으니까. 유리창 청소도 하고 말아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연차 쓸 시간도 없이 일을 했단 말이죠. 요즘은 일과 삶의 발란-스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연차쓰기 장려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연차 꼭 다 써가면서 일하기~(다 못 쓰면 뽀뽀~^^*)

자라나는 나무들 (눈물을 삼키며...)썸바디 헬프 미

Q. 앞으로의 공터에 대한 기대 부탁드립니다.

동고동락 이용자 공터 존재 자체로 특. 별. 해.

앞으로도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꽉꽉 넣어주세요!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책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버팀목 대손배림들 공간에 대한 기대가 커요. 새로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요. 늘 하던 대로 잘 하시길~ 행쇼~!

자라나는 나무들 새 건물은 항상 옳죠. New is the Best.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잘 꾸려나가고 싶어요. 기존의 분들에게는 리모델링되는 공터이지만, 첫 공터로 만날 새로 오신 분도 공터를 소중하게, 단단히 잘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의욕활활!



2. 잘망잘망

*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잘된 프로그램 TOP 5



도서관에서 1박2일 (초창기)

접수 대기줄이 어마어마했다는
전설적인 프로그램

세상과 마을을 바꾸는 청소년학교 7th (2017)

청소년들의 정책 만들기로
향했던 프로그램

제9회 꿈마을 공릉동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2019)

첫 야간 축제!

스네노의 반짝매점

자주 열리고, 음식이 맛있는
GOD성비!

공릉동꿈마을공동체 신년행사 마을걷고 떡국먹기

공터의 일년을 여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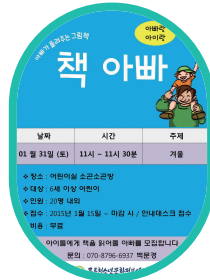


망한 프로그램 TO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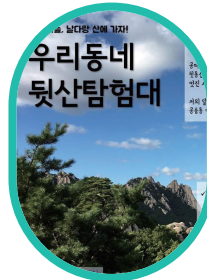
**마을탐방:공릉동GO! -
공릉동 포켓몬지도
만들기 프로젝트 (2017)**

길에서 와이파이가 안터져!



**아빠가 들려주는 그림책
'책아빠' (2015)**

아빠 연차 실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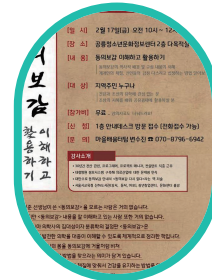
**우리동네 뒷산탐험대
(2018)**

체력 부족으로 1회 마무리!



**돌아온 애니보기의 정식
시즌2 - 아드만
애니메이션전 (2018)**

아차차, 시험기간!



**동의보감 이해하고 활용하기
(2017)**

어려운주제 동의? 어보감!

3. 궁물타임

1

유카25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과 가장 망한 라면 레시피는?

1순위는 너구리 망한 레시피는 감자면+해물라면

2

유카에서 예약한 시간 기다리면서 뭐하지?

보드게임, 만화책, 수정 화장, 농구, TV 등!

3

꽃다방 1순위 음료와 히든 음료는?

1위 아메리카노/히든 음료 설기라떼

4

꽃다방 이용 팁은?

청소년 할인 꼭 받기

5

든든한보파리(되살림가게) 이용 팁은?

물건 들어오는 요일이 언제인지 살짝 물어보기



6

공터에서 음식 먹을 수 있는 장소는?

2층 로비, 3층 유스카페, 4층 남남이공간

7

공터에서 광합성이 필요하다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각 층 테라스, 7층 하늘 정원

8

공터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센터 내 홍보지/공터 홈페이지/페이스북

9

의도치 않게 연체자가 된 그대를 위한 화랑도서관의 이용방법은? '기증하고 연체 풀고' 이벤트 참여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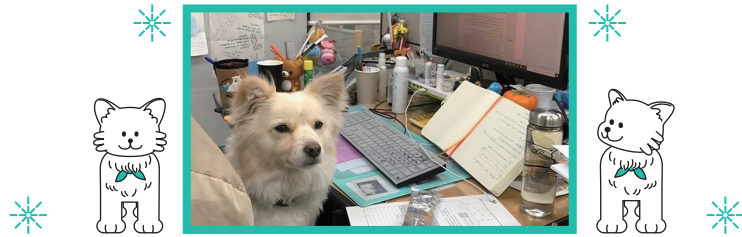
책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서가 추천하는 책



4. 설기도감

만년 대리 - 백설기



[믹스견 / 설대리 / 미견(美犬)]

2013년 11월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 경기도 광주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후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로 발령받아왔다. 어렸을 때부터 뛰어난 미모로 공릉동 어린이들의 마음을 여럿 훔쳤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8년째 대리에 머물고 있다. 진급을 못해 짜증이 많다. 기분이 나쁘면 히스테리를 부리기도 하니 간식을 주며 싸바싸바로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 최근 몇 달 동안 목욕을 하지 않아 냄새로도 공격을 하니 조심해야 한다.

공격 / 1000 애교 / 5 사회성 / 5

설기 인스타그램 : @sg_stagram

「 2020년, 새롭게 태어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space T의 두번째 기지로 노원구청과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space T는 씨프로그램, 도서관화재단씨앗이 함께 만드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입니다. 」

비우고, 채워가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발행처 노원구립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디자인 이화
주소 서울시 노원구 1-나길 10 (공릉2동)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전화 02-973-1318
팩스 02-976-1318
홈페이지 www.gycenter.or.kr



